

사랑하는 자녀분을 "왕따의 함정" 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 . .



각계에서 활약하는 분들의 의견을
신문에서 모아 보았습니다

PART 2

「왕따는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아이의 일상생활을 지켜 봅시다

어드바이스 1⇒왕따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기분으로 상대를 응시할 수 없는가.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도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고민을 왕따라고 하는 형태로 발산시키지 않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어드바이스 2⇒왕따 당하고 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 . . 그런 마음은 옳지 않다. 부모는 아이가 이야기해 주어야 안심한다는 것을 자녀분에게 전해 주자. 부모는 함께 화내고 행동해 준다는 것을 믿도록 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어드바이스 3⇒왕따하는 아이가 밤에 혼자서 걷고 있었을 때 매복해, 봉으로 반격 했던 적이 있다. 상대는 비명을 질렀다. 폭력은 안 된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강한 아이는 폭력으로 반격하지 않는다 왕따하는 아이는 불량에도 들 수 없는 어중간한 인간이다. 이쪽의 보복에 반격 하는 근성도 없다. 정신적으로 지지 않는 것이다. 싫은 상대라도 좋은 곳을 찾아내자.

어드바이스 4⇒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와 좋은 인간 관계를 소중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상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혼자서라도 살아간다고 하는 독립심을 갖게 하도록 서로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과거에 창조적인 일을 완수한 많은 사람은 고독을 안고 인생을 극복해 왔다고 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어드바이스 5⇒왕따 당하면 학교에 가지 않는 다는 선택도 있다. 공부는 학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해 왕따의 실태를 밖에 알리는 것도 좋다. 아이의 무력감, 죄악감, 어쩔수 없음을 전하는 방법,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드바이스 6⇒당신이 부모라면 세계에서 제일 너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 엄마라는 것을 알도록 일상생활 중에 몸에 베기게 하자. 자신의 곁을 빨리 찾아내게 해 타인의 평가 등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자신 연마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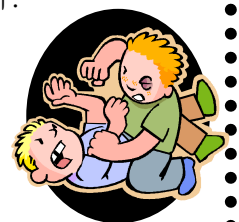
어드바이스 7⇒왕따를 하는 아이나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럴 때 반의 모두를 말려 들게 해 무엇인가를 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당신이 부모라면 그런 힌트를 아이에게 주는 것도 집단 괴롭힘을 없애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어드바이스 8⇒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왕따를 당하면 무리하게 가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의 장소를 떠나도록 해 주고 싶다. 신천지에서는 아이의 삶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주는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는 것도 부모의 의무일 것이다.

어드바이스 9⇒우리 아이가 왕따하는 본인임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따하는 원인이 되는 초조감을 찾아내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화의 장을 아이에게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드바이스 10⇒학교는 목숨을 잃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중학 졸업까지 살아남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의 환경을 바꾸어도 좋다. 고교생이 되면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나온다. 즐거운 생활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10월 1일부터 후지미노시에서 패스포트 취득이 가능하게!



패스포트의 신청 · 교부 수속이 10월 1일부터 후지미노시의 출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이타마현의 패스포트센터(카와고에, 오미야, 쿠마가이, 카스카베)에서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후지미노시 서비스센터 2층의 출장소로 바꿉니다. 고향에 돌아가시는 분, 해외 여행 하시는 분 등에게는 준비가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만 수속을 할 수 있는 분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후지미노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평성 25년 4월의 공립탁아소

· 시립 보육원의 입소 신청 접수

탁아소, 보육원에 자녀분을 맡기고 싶은 분을 위한 모집이 머지않아 각 시마치에서 시작됩니다. 맥 근처 관공서의 보육과로, 신청 방법이나 일정을 확인해 늦지 않게 해 주세요. 서류는 신청 서류 일식과 모자 건강수첩을 가지고 신청 아동을 데리고 신청합니다.



함께 즐기시지 않겠습니까? 후지미시의 「국제 교류 포럼 2012」

외국적시민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이벤트, 후지미시의 「국제 교류 포럼」이 11월 11일 (일)에 열립니다. 장소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후지미노교류센터]에서 후지미노역 동쪽 출구 도보 10분의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세계와 일본의 문화라고 제목을 붙여 세계 민족 의상이나 일본 기모노를 입은 사진 촬영, 꽃꽂이 체험, 일본식 복 체험, 태극권, 국기 카르타 등 다채롭습니다. 그 외에 재일 외국인이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과 자국의 차이 등을 말하는 「재일 외국인의 주장」,

그리고 어트랙션, 티타임, 타이식 맛사지, 전각... 등 즐거움은 계속 됩니다.

새로 생긴 후지미시의 "유루캐릭터" 후와피-썰도 당첨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시간은 12:00 부터 16:00 까지 유아보육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을의 기분 좋은 하루를 가족 여러분과 함께 놀러 오세요.

반드시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어린이·영유아의 의료비가 변경되었습니다.

● 어린이 의료비 지급 제도의 변경...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자녀분은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미요시마치의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건강 보험증과 수급 자격증을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창구에서의 지불이 없어졌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지급 제도의 변경... 0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자녀분은 10월부터 어린이 의료비지급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9월까지 유효했던 수급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증이 바뀝니다... 0세부터 중학 3학년의 자녀분으로 벌써 유아 의료비(노랑), 어린이의료비(복숭아)의 수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새 수급 자격증이 우송되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지급 등록 신청을 해 주세요.

외국인 긴급 카드가 생겼습니다



자연재해시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긴급시에 이런 카드가 있으면 살아난다 하지만」이라고 말한 외국인의 어드바이스로 「외국인 긴급 카드」가 생겼습니다. 가게에서, 학교에서, 동료끼리 사용해 주세요. 센터에 있으니 아래의 전화 번호로 신청해 주세요.

www.ficcc.jp/living/

● 정보의 상세한 설명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049-256-4290 로